

# 동구, 중장년 1인 가구 고위험군 관리 총력

전수조사...고위험군 522명 발굴  
소득 없어 경제·일자리 지원 시급  
사회적 이웃관계 유지 고립감 해소  
“민관 협력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광주 동구가 민선 8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촘촘한 복지 수업을 위해 추진한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522명의 고위험군을 발굴했다.

특히 이들 중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상자들이 많아 경제적·일자리 지원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 동구는 지난 2월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2차로 나눠 관내 만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1만608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 중 동거인이 있거나 미 거주자를 제외한 1만2667명 중 고위험군 522명을 발굴했다. 동구는 이들 506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나머지 16명은 지속적인 설득·관리 등 사후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판단 도구를 활용해 일상·사회적 고립 및 경제·신체·심리 정서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한 12개 항목을 통해 진행됐다. 여기에 동구에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항목까지 총 13개 항목의 조사가 이뤄졌다.

전수조사 결과 ‘일정한 소득 없음’이 27.4%로 가장 높게 나와 경제적·일자리 지원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문제로 나타났다. 이어 ‘바깥 외출 및 이웃 소통 없음’ 20.5%, ‘심한 외로움·고독감을 느

낌’ 14.8%, ‘도움을 받을 사람이나 기관이 없음’ 13.2%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안부 묻기 및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사업’에 대한 응답수가 가장 높았다.

동구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 가구 고위험군에 대한 다양한 예방·관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종교단체와 협력해 네트워크를 활용, 고위험군 대상과 사회적 이웃 관계 유지를 통해 고립감과 우울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기 징후가 보이는 1인 가구 주거지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구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지역 언론사와 협업해 60~70대 1인 가구 위험군 중 ‘지난 1주 동안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문 구독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배달원을 통해 안부 확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구 쪽방촌 지원 사업 시 큰 호응을 얻었던 ‘작한 나눔 바우처’ 지급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 외출이 없는 1인 가구가 바우처 쿠폰 사용을 위해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관리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소외된 1인 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kim@jnilbo.com

4개 언어 ‘민원서류 해석본’ 제작  
남구, 외국인 민원인 편의 제공

광주 남구가 국제결혼을 비롯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을 재정비해 종합민원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남구는 28일 결혼과 이민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외국인 등을 위해 민원서류 해석본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민원실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4개 언어로 제작하는 민원서류 해석본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원을 비롯해 기본 증명서, 출생 신고서, 체류지 변경 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까지 41종류다.

남구는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을 오는 30일까지 민원실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컴퓨터를 통해 해당 서식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석본 파일을 남구 홈페이지 전자민원 코너에 올릴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이 비치되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민원인의 민원 처리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민원인들에게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기 자

금융기관 기부금 기탁 잇따라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

광주 북구가 운영하는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에 금융기관의 기부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기탁자로 참여한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 기부금 기탁식’이 이날 열렸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KB국민은행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고자 3000만원을 쾌척했다.

앞서 지난 7월15일 열린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 기탁식에서도 광주은행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북구가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출연금,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 중인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 조성 목표액은 오는 2027년까지 총 44억원이며 북구는 기금 조성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탁받은 이번 기부금을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에 편입하고 향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선호도가 높은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내년도 기업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 26일 마을가드너 졸업생과 함께 영화로 가로화분에 가을꽃 식재작업을 진행했다.

서구 제공

‘지속가능한’ 마을가드너 양성  
서구, 생활 속 정원문화 전파

광주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컨대) 과정 중 하나로 ‘서구 마을가드너 양성과정’을 개설, 총 10회 정원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마을가드너 14명을 양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가드너는 꽃거리 정비작업과 더불어 생활 속 곳곳에서 정원을 조성하며 이웃에게 정원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생활정원 조성에 참여하는 ‘우리마을 늘봄정원’ 사업 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정원 유지·관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는 관내 교차로, 가로화분, 교통섬 등에 메리골드, 천일홍 등 가을꽃 8500본을 식재했다. 지난 26일에는 마을가드너 졸업생 등과 함께 지난 3월에 조성한 영화로 가로화분에 가을꽃 식재작업을 진행했다.

정성아 기자

‘해충 퇴치’ 친환경 포충기 설치  
광산구, 다중이용시설 16곳



광주 광산구가 위생해충매개감염병 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근린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친환경 포충기 4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친환경 포충기 214대에서 추가로 40대를 더 설치했다.

포충기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충을 퇴치할 수 있고, 가로등 점등 시간에 따라 자동 점멸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름철 방역 활동은 면적이 광범위한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지역 생태환경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방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야간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숙박·식음·체험 가맹점 할인  
발전방향 정책 논의 포럼도

‘광주아트패스’ 출범으로 광주가 스마트관광 도시로 도약을 꾀한다.

광주 동구는 29~30일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광주 동구 스마트관광 선포 및 관광 발전방향 정책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아트패스는 동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스마트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발한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이다. 디지털 기술과 예술여행의 콘텐츠를 접목해 동구만

의 스토리를 담았으며 관광 정보 검색, KTX 등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해 숙박·식음·체험·박물관 등 가맹점 예약 및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광주아트패스의 정식 출범을 알리고, ‘스마트 관광도시’ 도약을 선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수도권 및 지방 관광기업, 공공기관, 관광협회, 여행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광주아트패스오픈에 따른 스마트관광 선포 △업무협약식 △관광발전 포럼 및 관광기업 사례발표 △지역관광 관련 공공기관과 네트워크 회의가, 30일에는 △아트패스 팸투어 △기업 간 라

서구의회의, 9월3일 임시회부터 생방송 송출

의회 홈페이지·유튜브 채널  
“신뢰받는 의회로 발돋움”

광주 서구의회가 9월3일 개최하는 제325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와 기획중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을 생방송 송

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서구의회는 홈페이지에 회기별 본회의 녹화 영상을 게재했으나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모습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승일 의장은 “생방송 송출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위한 당연한 수순이며, 생방송 송출 외에도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더욱 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서구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